

## '이-'의 문법적 특성에 대한 통시적 고찰\*

김 정 아

이 글은 국어 계사 구문의 기원적 성격을 밝히고자 한 논문이다.

우선 석독구결 자료에서 계사와 관련된 교체 양상을 살펴본 결과, '이' 모음 뒤에서 계사 어간의 수의적인 생략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계사 어간에 연결되는 어미들의 'ㄷ:ㄹ' 교체나 'ㄱ:ㅇ' 교체, 'ㅇ:ㄹ' 교체 현상도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국어 부정문의 기원적 구조를  $[NP_1\text{이} [[NP_2(\text{이}) \text{아니-ㄷ}]_{NP3}\text{-이 이-}]]$  및  $[NP_1\text{이} [[NP_2 \text{아니-ㄷ}]_{NP3}\text{-ㄹ } \text{ㅎ-}]]$ 로 파악함으로써, 계사 구문의 기원적 구성이  $[NP_1\text{이} [NP_2\text{이 이-}]]$  형식의 주격중출문이었다고 결론지었다. 그 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논항을 취하는 형용사로서의 '이-'의 성격은 여전하다.

### 1. 머리말

이 글은 계사 '이-'의 형태·통사적 특성을 통시적으로 고찰하는 데 목

---

\* 이 글은 2000년 12월 15일 국어학회 공동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한 것이다. 지정토론을 해 주신 최동주 선생님(영남대)과 사석에서 세밀한 조언을 해 주신 정재영 선생님(한국기술교육대)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질의와 조언에 감사를 드린다.

적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그 동안 매우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고 후기 중세국어<sup>1)</sup>를 중심으로 한 통시적 검토 작업도 이미 이루어진 바가 있기 때문에(이현희 1994 참조), 본고의 논의도 그러한 작업들에 기대어 출발할 것이다. 그러나 후기 중세국어 이후의 양상에 대한 연구들이 전기 중세국어 및 고대국어 시기의 양상에 대한 검토들과 연계되어 정리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본고는 주로 후기 중세국어 자료에 나타나는 특징들을 그 이전 자료들<sup>2)</sup>에 나타나는 특징과 비교 검토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 2. ‘이-’의 형태론적 특징

2.1 15세기 국어에서 계사 ‘이-’의 어간은 주격조사 ‘이’와 마찬가지로 ‘이-/ㅣ-/∅-’의 교체를 보인다. 즉 체언 말음이 자음이면 단모음 ‘ㅣ’로, ‘i, y’ 이외의 모음이면 음절부음 ‘y’로 나타나고, ‘i, y’ 뒤에서는 실현되지 않는다(안병희·이광호 1990:208). 그러나 이러한 교체 현상은 주격조사의 경우와 같이 이미 16세기부터 흔들리다가, 19세기에 이르면 ‘i, y’뿐만 아니라 일반 모음 뒤에서도 계사 어간 ‘이-’가 완전히 생략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이현희 1994:91). 하지만 모음 뒤에서의 ‘이-’의 생략은 선행요소의 음운론적 조건에 절대적으로 기대는 것이 아니라 ‘이-’의 문법적 특성과 관련된 통사적 기준에 의해 조건지어지는 것으로 보인다(이승재 1994).

그러나 이러한 계사 어간의 교체 현상이 그 이전 시기에 어떤 양상으

1) 국어의 시대 구분과 명칭은 이기문(1972)를 따른다.

2) 훈민정음 이전 자료라면 향가, 이두, 구결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중 국어의 문법적 특성을 가장 다양하고 풍부하게 잘 보여주는 자료는 아무래도 석독구결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도 주로 석독구결 자료를 중심으로 훈민정음 자료와 대비시켜 검토하고자 한다.

- 물론 이처럼 생략 표기가 가능하더라도 석독구결 자료에서는 예문 (2)에서 보듯이 일단 자음 뒤에서나 모음 뒤에서나 계사 ‘나(이)-’가 표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sup>51)</sup>

- (2)ㄱ. 是<sup>7</sup> 涅槃<sup>リ</sup> 思惟<sup>ソキ</sup> 是<sup>7</sup> 生死<sup>リ</sup> 思惟<sup>ソキ</sup>  
이<sup>는</sup> 涅磐이다 思惟<sup>하</sup>저 이<sup>는</sup> 生死이다 思惟<sup>하</sup>저  
(금광 7:21-24)
- ㄴ. 顯現<sup>ソフ</sup> 所<sup>リ</sup>  
顯現<sup>현</sup> 바이다 (유가 17:5-10)
- ㄷ. 行道<sup>セ</sup> 勝利<sup>シメ</sup> 矢<sup>ハ</sup> 波羅蜜義<sup>リ</sup>  
行道<sup>入</sup> 勝利를 훈 디 이 波羅蜜義이며 (금광 5:8-9)
- ㄹ. 世尊<sup>ヲ</sup> 智<sup>チ</sup> 一味<sup>ニ</sup>

- 3) 석독구결의 해독은 《구결연구》 3집(1998, “고려시대 석독구결의 표기법에 대한 연구” 특집호)에 실린 해독을 그대로 옮겼다. 연구자에 따라서 다소 해독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본고에서 인용한 자료들 간에 통일성을 잃는 경우도 있으나 우선은 그대로 인용하고 문제가 되는 경우에만 따로 언급하였다.
- 4) 석독구결 자료의 명칭은 일반적으로 쓰이는 약호를 사용했다. 구결 자료의 서지적 특징에 대해서는 낙권회(1997) 등을 참조.
- 5) 물론 ‘ㅈ’처럼 선행요소와 결합하여 표기되기도 한다.

世尊의 智는 一味이시하 (금광 13:9-10)

하지만 한자어 뒤에서의 이러한 ‘ㄷ’ 표기 현상이 실제 음운현상인지 표기의 문제인지는 사실 확실치 않다.

또 한편으론 아래에서 보듯이 ‘-리이-/리-’ ‘-디이-/디-’ 등의 표기상의 대립이 수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sup>6)</sup>

(3) ㄱ. (...ㄷ) 名 爲幻諦 訖 ㄷ ㄷ ㄷ

(...을) 읽아 [爲]幻諦여 호리이며 (구인 14:1-2)

ㄷ. 是故 九地 說尸 名下 善慧地 訖 ㄷ ㄷ

是故로 九地를 니를 일하 善慧地여 호리며 (금광 7:12-14)

(3)에서 ‘호리이-/호리이-’를 ‘ㅎ+(오)+ㅁ+이(의존명사)+이(계사 어간)-’의 결합으로 분석하면, ‘호리-/호리-’형은 ‘ㄷ’ 모음 뒤에서의 계사 어간 ‘이-’의 생략 현상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호리이-/호리이-’와 ‘호리-/호리-’에 대해 전자는 ‘ㅎ+(오)+ㅁ+이(의존명사)+이(계사 어간)-’로, 후자는 ‘ㅎ+(오)+ㅁ+이(계사 어간)-’로 달리 분석한다면 이는 생략 현상과는 관련이 없다. 또한 이들의 형태론적 구성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정말 이들이 당시 ‘ㄷ’ 모음 뒤에서의 계사 어간 ‘이-’의 수의적 생략 현상을 보여 주는지 아니면 단순한 표기상의 차이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3') ㄱ. 法 聽聞 訖 ㄷ ㄷ ㄷ

法을 聽聞함다인더 (유가 4:15-19)

ㄷ. .... 爲 訖 ㄷ ㄷ ㄷ 訖 ㄷ ㄷ

.... 爲함다 訖 안들함제 함다 (유가 4:15-19)

ㄷ. 一切 ㄷ 皆 永斷 訖 非 ㄷ ㄷ ㄷ 故 ㄷ

一切 ㄷ 皆 永斷함다 안다인 드로 故함 (유가 15:14-17)

6) 이러한 표기 양상은 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경향이 다소 다른 것으로 보인다.

ㄱ. 圓滿↘호 淸淨 鮮白↘호 丁ノ个 未矢四

圓滿호아금 淸淨 鮮白호건더 호리 안디라 (유가 16:9-16)

(3'ㄱ)과 (3'ㄴ)도 표면적으로는 ‘-리이-’와 유사하게 ‘-디이-’의 대립을 보인다. 하지만 ‘-디이-’를 의존명사 ‘ㄷ’를 포함한 ‘-디+ㄷ+이+이-’의 구성으로 분석할 경우 중복되는 ‘이’ 중 앞의 ‘이’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가 문제로 남는다. 이는 부정사 ‘안디’( 및 ‘안둘’)가 기원적으로 ‘ㄷ’를 포함한다고 인정할 경우 (3'ㄴ)의 ‘안디이-’에도 해당되는 문제이다.<sup>7)</sup>

‘-디이-’와 관련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우선 두 가지 해결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모음 ‘i’가 중복표기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둘째는 ‘ㄷ’의 이형태로서 ‘디’를 인정하는 것<sup>8)</sup>이다.<sup>9)</sup> 그러나 첫 번째 경우 모음의 중복표기란 점이 다소 생소할 뿐만 아니라, 둘째의 대안도 ‘디’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3) 및 (3')과 같은 표기상의 차이를 있는 그대로 의미있는 모습이라고 인정하는 한편, ‘-리이-’는 ‘-디+이+이-’로, ‘-디이-’는 ‘-ㄷ+이+이-’로 분석하는 쪽<sup>10)</sup>에 비중을 두고자 한다. 그렇다면 ‘-리이-’에 대해서 ‘-리-’형이, ‘-디이-’에 대해서 ‘-디-’형이 쓰일 때 과연 생략된 ‘이’가 앞의 ‘이’인지 뒤의 ‘이-’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즉 현재로서는 이러한 표기상의 차이들이 어디까지 실제 언어현상을 반영하는지 나아가 당시 계사 어간의 교체 양상이 정확히 어떤 것이었는지 결론내리기는 힘든 상황이지만, 다만 잠정적으로 ‘i’ 다음에서 계사

7) 이 문제는 3장에서 좀더 자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8) 정재영(1996ㄴ)의 ‘-르덴’에 대한 분석 참고.

9) 이는 공동토론회 후 정재영 선생님이 지적해 주신 대안들이다. 이밖에도 세밀한 문제들까지 언급해 주신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10) 이렇게 분석한다고 해서 ‘-리이-’와 ‘-디이-’의 구성에서 앞에 나오는 ‘이’가 반드시 동일한 요소라는 말은 아니다. ‘-디+이+이-’에서 밑줄친 ‘이’는 의존명사가 될 수 있겠지만, ‘-ㄷ+이+이-’에서 밑줄친 ‘이’는 본고에서 주격조사로 이해되기 때문이다(뒤의 3장 참고).

어간 ‘이-’의 생략이 수의적이었을 가능성을 열어 두고자 한다.

2.2 이 절에서는 계사 어간 뒤에 연결되는 어미들의 교체 양상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5세기 국어는 계사 뒤에서 ‘ㄷ’ 두음 어미들이 ‘ㄹ-’로, ‘ㄱ’ 두음 어미들이 ‘ㅇ-’으로 교체되며, 모음어미들은 ‘ㄹ’을 더 가진 형태들로 교체됨을 보여 준다(안병희·이광호 1990 등 참고). 이러한 교체는 15세기 국어에서는 필수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석독구결에서는 사정이 다르다.<sup>11)</sup>

우선 석독구결 시기에 ‘ㄷ:ㄹ’ 교체 현상이 존재했느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 문제의 초점은 ‘ㄱ ㅁ(이라)’( 및 ‘ㅅ ㅁ(리라)’ ) 형태에서 ‘-ㅁ(라)’가 모두 연결어미나 아니면 종결어미인 경우도 있느냐 하는 것이다. 석독구결에서 ‘ㄱ ㅁ’로 쓰인 예들이 모두 연결형이라면 ‘ㄷ:ㄹ’ 교체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만, 종결형이 있다면 이는 ‘ㄷ:ㄹ’ 교체 현상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자의 입장에서는 ‘ㄷ:ㄹ’ 교체를 순독구결 시기(14세기 이후?)에나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지만, 후자의 경우 그 시기는 더 앞당겨질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향가의 몇 예들을 눈여겨보게 된다.

(4) ㄱ. 迷火隱乙根中沙音賜焉逸良

이보늘 불휘 사ㅁ시니라. (恒順衆生歌 2)

ㄴ. 法性叱宅阿叱寶良

法性 지ㅁ 寶라. (普皆廻向歌 7)

ㄷ. 脚烏伊四是良羅

가로리 네히러라. (處容歌 4)

향가의 언어가 최소한 석독구결과 같은 시기 혹은 그 이전의 모습을

11) 구결 자료에 나타나는 계사와 관련된 음운 현상에 대해서는 이승재(1994, 1996, 1998), 박진호(1998), 김유범(2000) 등을 참조.

보이는 것이라면, (4)의 예들은 ‘ㄷ:ㄹ’ 교체 현상이 적어도 13세기 이전에 시작되었음을 증명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유범 2000 참고).

이러한 입장에서 본고는 석독구결 자료에 나타나는 ‘ㄱ ㄴ’의 일부는 종결형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에 따르면 (5)와 (6)은 ‘-다 → -라’의 교체를 보이는 예들이며, 또한 ‘-ㅅ(리)-’가 계사를 포함하는 구성이라면 (5, 6) 모두 계사 뒤에서의 ‘ㄱ:ㄴ’ 교체라고 할 수 있다.

- (5) ㄱ. .... 淸淨行을 說ᄃ ᄆ로ᄃᄆ ᄆᄆ  
..... 淸淨行을 니르ᄃ 끝은이라 (화엄 8:23)  
ㄴ. 是 陀羅尼七 名一 ..... 初地菩薩乙 救護호 [爲]인호白호니 호니 호니  
이 陀羅尼인 일흔은 ..... 初地菩薩을 救護호[爲]과 호순은이신이라  
(금광 9:7-8)
- (5') ㄱ. 五者 不退轉地시 願求호니호니失나니 호니  
五者 不退轉地를 願求호며 호 디견이다 (금광 3:15)  
ㄴ. ...호니호니의 호니 호니 續호는 不失호 異호니호니의 호니 호니  
續호는 不失호의 호니  
...이다 호골 든 호호 續호리 안디며 호이다 호골 든 호호 續호리  
안딘드로여 (구인 14:7-8)
- (6) ㄱ. 果호니 호니호니호니 無호니호니호니호니  
果호니 안들호더 호 업시 호야져리라 (화엄 14:9)  
ㄴ. 解脫圓滿호니호니  
解脫圓滿호리라 (유가 5:10-17)
- (6') 是시 名下 智波羅蜜因호니호니호니  
이를 일하 智波羅蜜因호 호리라 (금광 2:17-19)

결론적으로 (5, 6)과 (5', 6')을 비교해 보면, 석독구결에서 계사 뒤의 ‘ㄷ:ㄹ’ 교체는 수의적인 현상임을 알 수 있다.<sup>12)</sup>

12) 앞으로 석독구결 자료에서 ‘ㄱ ㅁ’가 종결형인지 연결형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정확한 텍스트 분석 작업과 ‘ㄷ:ㄹ’ 교체 현상의 생성과 변화과정에 대한 세밀한 추적 작업이 과제로 남아 있다 하겠다(김유변 2000 참조).

14) 계사 및 '-ㅈ(리)-' 뒤에 나오는 '-ㅅ(앗/엇)-'이 '-거- + -ㅅ-'의 구성이라는 견해는 이승재(1994) 참조.



- 15) 이 'ㅄ(ㅄ)'에 대해서는 의존명사로 보는 견해와 선어말어미로 보는 견해가 있다 (박진호 1998, 남풍현 1996, 이승재 1998 등 참고). 본고에서는 결론을 보류한다는 의미에서 이 형태에 대해 '-' 표시를 하지 않았다.

(11) 7. 佛: 及ハ衆生:ノ令<sub>7</sub> 一<sub>11</sub> 而<sub>12</sub> 二 無<sub>7</sub>ナ<sub>1</sub>

佛어 므 衆生여 호린 하나히라 而<sub>12</sub> 둘 업겨다 (구인 15:11-12)

나. 或<sub>7</sub> 長者<sub>11</sub> 邑<sub>12</sub> 中<sub>7</sub> 主<sub>11</sub> 爲<sub>7</sub>乙<sub>12</sub>

또한 長者이라곰 邑<sub>12</sub> 中<sub>7</sub> 主<sub>11</sub> 爲<sub>7</sub> 乙<sub>12</sub> (화엄 19:8-9)

이처럼 12, 13세기의 석독구결 자료에 나타나는 모습을 15세기 국어 자료와 비교해 보면, 계사에 후행하는 어미들의 교체 현상이 이미 이 시기에 존재했으나 그 후 대체적으로 그 실현 환경을 넓혀 가며 필수 규칙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계사와 관련된 이러한 특별한 교체 현상들은 16세기 이후 다른 일반 용언의 활용과 닮아가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게 되었다. 그 결과 현대국어에서 계사 ‘이-’는 부분적으로<sup>16)</sup> 과거의 흔적을 볼 수 있을 뿐 전체적으로는 일반적인 활용의 모습을 갖게 되었다.

### 3. ‘이-’의 통사론적 특징

3.1 현대국어에서 ‘이-’는 용언이나 아니냐, 용언이라면 한자리 술어나 두자리 술어나 등의 논의가 이어져 왔다. 그러나 중세국어에 대해서는 또 다른 논의가 추가될 수 있다. 즉 명사문의 존재와 그 성격에 관한 문제이다.

15세기 국어에서의 ‘이-’ 구문의 실현 양상은 이현희(1994:3장)에 잘 정리되어 있다. 여기에 따르면 15세기 국어에서는 [NP<sub>1</sub>이 NP<sub>2</sub>]가 그 자체로서 문장적 성격을 가지며, ‘(-)이-’<sup>17)</sup>는 이러한 [NP<sub>1</sub>이 NP<sub>2</sub>] 구성에

16) ‘이어(-아)→이라’의 교체가 부분적으로 남아 있고, 고어체(-이라., -니라., -리라.)나 인용 표현(-이라고), 혹은 관용적 표현(내로라) 등에 일부 옛 흔적이 남아 있다.

17) ‘(-)이-’처럼 계사 앞에 ‘(-)’ 표시를 한 것은 이현희(1994)의 견해를 그대로 보이기 위한 것이다.

어미를 통합하여 문장을 종결하거나 연결시키는 기능을 하는 형식요소가 된다. 이에 따라 ‘아니-’ 부정문의 구조도 [[NP<sub>1</sub>이 [NP<sub>2</sub>이 NP<sub>3</sub>(=아니)]]-이-]가 된다. 이처럼 [NP<sub>1</sub>이 NP<sub>2</sub>]가 문장적 성격을 지녔음은 이현희(1994:2.1, 3.1 등)에서 다양한 예들과 논증을 통해 이미 제시된 바 있다.

14세기 순독구결 자료인 《梵網經菩薩戒》의 다음과 같은 예에서도 마찬가지로 성격의 [NP<sub>1</sub>이 NP<sub>2</sub>] 구성을 발견할 수 있다(정재영 1996 7:149, 이현희 1994:37).

- (12) 汝等一切大衆若國王王者百官比丘比丘尼信男信女<sub>11/11/11</sub> 受持菩薩戒者<sub>11/11/11</sub>  
 1 應受持讀誦解說書寫<sub>ノチヒ/ノチヒ/0</sub> 佛性<sub>11/11/0</sub> 常住<sub>ンカ/ンカ/0</sub> 戒<sub>券<sub>11/11/11</sub> 流通三世<sub>ン3//3</sub></sub> (범망 43b)<sup>18)</sup>

따라서 명사문의 존재는 15세기 이전의 차자표기 시대까지 거슬러 확인할 수 있다 하겠다.

그러나 계사 구문의 기원적 성격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차자표기 자료에 나타나는 계사 구문의 성격이 15세기 국어의 모습과 동일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 중 한 가지는 계사에 선행하는 요소들의 종류이다.

계사 앞에는 체언이 나타나는 것이 전형적이지만, 분열문적 성격을 띠는(이현희 1994:2.4.1 참조) 다른 요소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 15세기 국어의 계사 앞에는 연결어미 ‘-아/어[이유]’, -르쎌, -고저, -오래’ 등이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조사나 부사 등이 오는 경우는 볼 수 없다(이현희 1994:80-81). 반면 현대국어에서는 어미 이외에도 부사, 조사(‘-에, -로, -와’ 등의 격조사 및 기타 보조사들; 이남순 1999:47) 등이 계사 앞에 올 수 있다.

18) 구결 부분이 ‘/’로 분리된 것은 각각 ‘嚴仁變本/국립도서관본/정신문화연구원본’의 표기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서 15세기 국어에서 현대국어까지의 양상만 비교해 본다면 계사에 선행하는 요소는 체언에서 어미, 부사, 조사에 이르기까지 점차 확대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구결 자료를 살펴보면 이렇게 단순히 설명할 수는 없게 된다. 다음처럼 계사에 조사 ‘-도, -로’가 선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 (13) ㄱ. 伏忍し 得ヒカリナ 空：無生：ノ今ヒ 忍し [者] 得ヒカリナ 乃：至  
 ㄴ 一地：十地：ノ今ヒ 不可説ヒ 德行し ノヒカリナ  
 伏忍을 얻는도이며 空여 無生여 호릿 忍을 얻는도이며 (乃히사) 니  
 르리 一地여 十地여 호릿 不可説入 德行을 ㅎ는도이겨다  
 (구인 14:15-16)

- ㄴ. .... 煩惱：ノヒ 除ソントろ<sup>19</sup> 二諦理し 窮ソ一切之ヒ 盡ソ  
ノヒカリナ  
 .... 煩惱여 홀(홀을) 除히시누온 든 二諦理를 다아 一切엿 다아신  
 드로이오다 (구인 11:1-2)

또한 감탄의 ‘-야(여)’가 계사에 기원을 두고 있다면(이승재 1998:67), 다음 예들에서 ‘-여’에 선행하는 조사 ‘-로’와 ‘-을’도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14) ㄱ. 何以故 ソ白ノチ入 說法ヒ[之]處ニ 卽ノ 是<sup>19</sup> 其塔ニ<sup>19</sup> 口<sup>19</sup>  
ソ  
 何以故여 ㅎ솔보릴 든 說法入 處이 고도 이는 其塔이시곤 드로여  
 (금광 15:11)  
 ㄴ. 敬禮ソ白ロノサヒ 譬喩ソ<sup>19</sup> 入 無<sup>19</sup> 深無上意<sup>19</sup> 說<sup>19</sup> ソロト  
ソ  
 敬禮ㅎ송고 ㅎ다 譬喩하아 ㅎ 드(들) 없으신 深無上意를 니르시고  
 눈을여 (금광 13:4)

19) 여기서의 ‘ㄴ’을 조사가 아닌 동명사 어미 ‘-로’로 보기도 하나(남풍현 1996:4), 표기자로 볼 때 조사일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나 여기서 ‘-여’가 완전히 감탄조사로 문법화된 상태라고 인정한다면 (14)의 예들은 계사 구문의 예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13ㄷ, ㄹ)과 함께 (14)의 예들이 15세기 국어의 계사에 의한 분열문과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을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석독구결 자료들은 계사 앞에 ‘-도, -로, (-을)’ 등의 조사가 출현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15세기 자료와 구별되는데, 15세기 국어와의 이러한 차이는 차자표기 자료에 나타나는 계사 구문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3.2 여기서 우리는 우선 국어 부정문의 양상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국어 부정문의 성격에 대한 이해가 계사 구문의 기원적 성격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기대하기 때문이다.

차자표기 자료에 나타나는 부정문의 모습은 15세기 국어와 상당히 다른데, 이러한 양상을 일단 종합 정리해 보기로 한다.<sup>20)</sup>

명사<sup>21)</sup>의 부정은 피부정사(명사(형)) 뒤에 ‘안다-(이)-’가 나오고(예문 15), 용언의 단형 부정은 부정사 ‘안돌(안득, 아니, 모돌)’ 뒤에 피부정사(동사, 형용사)가 온다(예문 16)는 점에서 15세기 이후의 국어와 다르지 않다.

(15) ㄱ. 謂<sub>ㄴ</sub>수 非<sub>ㄴ</sub>矣<sub>ㄴ</sub> ㄴ

謂호리 안디이다 (구인 15:5)

ㄴ. 十方<sub>ㄴ</sub> 一切 諸<sub>ㄴ</sub> 妓樂<sub>ㄴ</sub> 鐘<sub>ㄴ</sub> 鼓<sub>ㄴ</sub> 琴<sub>ㄴ</sub> 琵琶<sub>ㄴ</sub> 一<sub>ㄴ</sub> 類 非<sub>ㄴ</sub> 矣<sub>ㄴ</sub> ㄴ  
十方<sub>ㄴ</sub> 一切 모든 妓樂인 鐘여 鼓여 琴여 琵琶여 호린 ㅎ 類 아니던여  
(화엄 15:24-16:1)

(16) ㄱ. 衆生<sub>ㄴ</sub> 形相<sub>ㄴ</sub> 各<sub>ㄴ</sub> 不<sub>ㄴ</sub> 多 同<sub>ㄴ</sub> 矣<sub>ㄴ</sub> ㄴ

衆生인 形相은 제여곰 안돌 오히며 (화엄 15:1)

20) 차자 표기 자료의 부정문에 대해서는 남풍현(1976), 박진호(1998) 등을 참조.

21) 여기서 ‘명사’란 용어는 기존의 ‘체언’에 해당하는 넓은 개념으로 쓰였다. 체언을 하위분류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ㄴ. 量 ㄴ 無 ㄴ 佛 ㄴ 華 上 ㄴ + 座 ㄴ + 十方 ㄴ + 示現 ㄴ 尸ム 不多 徧 ㄴ  
 ㄴ 磨 ㄴ ㄴ 尔  
 그지 업슨 佛이 華上아지 座하아 十方아지 示現호디 안돌 徧마다  
 혼 업서곰 (화엄 13:2-3)

그러나 장형 부정문의 양상은 다르다.

- (17) ㄱ. 二者 一切 衆生 → 爲<sub>ニ</sub> 煩惱因緣<sub>一</sub> 作<sub>ル</sub> 不<sub>レ</sub> 幸<sub>ナ</sub>  
 二者 一切 衆生의 삼 煩惱因緣을 作<sub>스</sub> 안<sub>디</sub> 幸<sub>하</sub>며 (금광 3:1-4)  
 ㄴ. 聞持陀羅尼<sub>ヲ</sub> 具<sub>ス</sub> 不<sub>レ</sub> 幸<sub>ナ</sub> ㄱ<sub>ヲ</sub> 刀<sub>ニ</sub>  
 聞持陀羅尼를 具<sub>스</sub> 안<sub>디</sub> 幸<sub>하</sub>는도 (금광 7:18-20)  
 ㄷ. 衆生<sub>ノ</sub> 資身<sub>ト</sub> 具<sub>ス</sub> 有<sub>ル</sub> 4尸<sub>ヲ</sub> 未<sub>レ</sub> 리<sub>リ</sub> ㄴ<sub>ヲ</sub> 의乙 見<sub>ル</sub> 호<sub>ハ</sub> ㄱ<sub>ヲ</sub>  
 衆生은 資身<sub>스</sub> 具를 有<sub>스</sub> 아니<sub>하</sub>는 ㄴ 보<sub>스</sub> 곡은 (화엄 19:12-13)
- (18) ㄱ. 世間<sub>ノ</sub> 一<sub>ハ</sub> 異<sub>ル</sub> ㄴ<sub>ヲ</sub> 不<sub>レ</sub> 知<sub>リ</sub> ㄱ<sub>ヲ</sub> 矢<sub>ナ</sub>  
 世間은 一(이)며 異<sub>스</sub> 안<sub>디</sub> 인디 (금광 13:14-15)  
 ㄴ. 思議<sub>ノ</sub> ㄴ<sub>ヲ</sub> 可<sub>レ</sub> ㄴ<sub>ヲ</sub> 不<sub>レ</sub> 知<sub>リ</sub> ㄱ<sub>ヲ</sub>  
 思議를 知<sub>스</sub> 안<sub>디</sub> 며 (구인 11:23-24)

(17, 18)에서 보듯이 용언의 장형 부정은 ‘안돌 ㅎ-(안독 ㅎ-, 아니 ㅎ-)-’를 취하는 구성과 ‘안디-(이)-’를 취하는 구성으로 나뉘는데, 전자는 동사의 부정에, 후자는 형용사의 부정에 쓰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형용사가, 같은 용언인 동사의 부정과 같은 형식이 아니라 명사의 부정과 같은 형식을 취하는 점이라 하겠다. 이 때 동사는 동명사 어미 ‘-ㅁ’을 취하는 데 반해 형용사는 ‘-ㄴ’을 취한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그런데 사실 이 시대에 동사의 부정과 형용사의 부정이 위에 정리된 것처럼 항상 엄격히 구분된 것은 아닌 듯하다.

- (19) ㄱ. 若能法→永去滅<sup>ㄷ</sup>口<sup>ㄷ</sup>不失<sup>ㄷ</sup>口<sup>ㄷ</sup>의<sup>ㄷ</sup>知<sup>ㄷ</sup>은<sup>ㄷ</sup>尸<sup>ㄷ</sup>의<sup>ㄷ</sup>  
 ㅎ다<sup>ㄷ</sup>잔<sup>ㄷ</sup> 能<sup>ㄷ</sup> 法<sup>ㄷ</sup>의<sup>ㄷ</sup> 길<sup>ㄷ</sup>과? 滅<sup>ㄷ</sup>하<sup>ㄷ</sup>곤<sup>ㄷ</sup> 아<sup>ㄷ</sup>니<sup>ㄷ</sup>디<sup>ㄷ</sup>닌<sup>ㄷ</sup> 든<sup>ㄷ</sup> 알<sup>ㄷ</sup>낱<sup>ㄷ</sup> 든<sup>ㄷ</sup> (화엄 11:16)

ㄴ. 未來 3 + 是礙 ㄴ 更 3 生 ㄴ 不ハント ㄴ 更 3 生 不ハント ㄴ 智 ㄴ  
得 尸 未ハント ㄴ 刀

未來아기 이 장애 1 가시아 난 안득 ㅎ 가시아 生 안득히릿 智를  
얻을 안득 ㅎ눈도 (금광 8:8-10)

(20) ㄴ. 世尊乙 離 不矢 ㄴ

世尊乙 離 안디져 ㅎ아 (금광 14:5-6)

ㄴ. 足 未ハント ㄴ 刀

足 안득 ㅎ눈도 (금광 8:6-8)

(19)의 밑줄친 부분은 모두 피부정사가 동사이다. 그런데도 (19ㄴ)은 (18)의 형용사 부정처럼 ‘동명사어미 ‘-ㄴ’ + 안디어-’ 형식을 취했고, (19ㄴ)은 ‘안득 하-’를 취하긴 했으나 동명사어미로 ‘-ㄴ’이 아닌 ‘-ㄴ’을 취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20)과 같은 한자어구 혹은 한자 어근의 부정은 석독구결 자료에서 상당히 눈에 띄나,<sup>22)</sup> 그 구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는 다소 확실치 않다. 한자 어근 ‘離, 足’ 뒤에 ‘-ㅎ’와 동명사어미(‘-ㄴ’ 혹은 ‘-ㄴ’)의 표기가 생략되었다고 볼 것인지, 표기된 그대로 이해해야 할지 결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20’)의 밑줄친 부분들을 비교해 보면 동명사어미의 표기가 생략되었을 가능성이 높다.<sup>23)</sup>

(20’) ㄴ. .... 智慧分別無量 ㄴ 尸 乙 能 攝持 尸 未ハント ㄴ 刀 .... 得 3 尸 自在  
未ハント ㄴ 刀

.... 智慧分別無量여 ㅎ을 能 攝持 ㅎ 안득 ㅎ눈도 .... 시러곰 自在  
안득 ㅎ눈도 (금광 8:6-8)

ㄴ. 未來 3 + 是礙 ㄴ 更 3 生 ㄴ 不ハント ㄴ 更 3 生 不ハント ㄴ 智 ㄴ

22) 다음과 같은 예들을 자주 발견할 수 있다.

<예> 於法如來 3 + 動 不 ㄴ 去 不 ㄴ 來 不 ㄴ

[於]法如來아기 動 안돌져 去 안돌져 來 안돌져 ㅎ며 (금광 14:18-20)

23) [世尊을 離]를 명사구로 취급하거나, ‘足 안득 ㅎ’를 현대국어의 ‘명백 안하다, 깨끗 안하다’와 같은 어근 분리 현상으로 볼 가능성도 있으나, (20’)과 같은 경우들을 감안해 볼 때 동명사어미가 표기에서 생략되었다고 보는 편이 나을 듯하다.

ㄷ 得尸 未ハントㄱ 刀

未來아지 이 장애ㅣ 가시아 난 안독 ㅎ 가시아 生 안독히릿 ㅈ를  
얻을 안독 ㅎ눈도 (금광 8:8-10)

그렇다면 (20ㄱ)은 동사 부정에 ‘안디(이)-’가, (20ㄴ)은 형용사 부정에 ‘안독 ㅎ-’가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일반 원칙에서 벗어나는 예들이다.

따라서 석독구결 시기의 장형 부정문의 일반적인 원칙이 (17, 18)에서처럼 동사와 형용사의 부정 형식을 구분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 원칙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동요는 대대적인 재편 과정을 거쳐, 15세기 이후의 자료가 보여 주듯이 동사와 형용사의 부정 형식이 같아지고 명사의 부정만 ‘아니-’를 취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동사와 형용사의 부정 형식은 구성 요소들의 결합 관계에서도 변화를 겪게 된다.

우선 부정문 형식의 변화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21)ㄱ.

<15세기 이전>

- ① 단형 부정(동사, 형용사) : 안-돌 + ‘동사/형용사’
- ② 명사 부정 : ‘명사’ + 안-디 이-
- ③ 장형 부정(형용사) : ‘형용사’-ㄴ + 안-디 이-
- ④ 장형 부정(동사) : ‘동사’-ㅁ + 안-돌 ㅎ-

ㄴ.

<15세기 이후>

- ① 단형 부정(동사, 형용사) : 아니 + ‘동사/형용사’
- ② 명사 부정 : ‘명사’ + 아니(이)-<sup>24)</sup>
- ③ 장형 부정(동사, 형용사) : ‘동사/형용사’-디 + 아니ㅎ-

(21ㄱ)과 (21ㄴ)을 비교해 보면 형용사의 부정이 동사의 부정 형식 쪽으로 통합되었다는 점 이외에, 형용사와 동사가 취하던 동명사어미 ‘-ㄴ’

24) 15세기의 ‘아니-’는 부정사 ‘아니’에 계사 ‘이-’가 결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과 ‘-ㄷ’이 삭제되고 그 자리로 부정사 ‘안’에 결합하던 ‘디’와 ‘들’이 옮겨 왔다는 점이 주목된다. 즉 15세기 부정문에서 피부정향의 용언이 취하는 어말어미 ‘-디/들’은 원래 부정사에 결합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아니호-’를 취하는 형식으로 통합되었다는 점에서는 형용사가 동사의 부정 형식 쪽으로 이끌려 왔다고 할 수 있으나, 피부정향의 용언이 일반적으로 어미 ‘-들’보다는 ‘-디’를 취하게 된 것은 오히려 반대의 현상이라 하겠다. 그러나 처음 동사 부정과 형용사 부정이 통합되는 과정에서는 어미 ‘-들’과 ‘-디’의 선택이 수의적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15세기 및 그 이후의 자료들은 어미 ‘-디(>지)’가 우세하고 일반화된 형태임을 보여 주지만, 한편으로는 ‘-들’의 모습이 여전히 눈에 띄기 때문이다. (22)는 15세기 국어의 예이고, (23)은 현대의 방언 자료이다.

(22) ㄱ. 업시오들 아니호노니 (석보 19:29)

ㄴ. 法 들들 아니호리라 (월석 2:36)

(23) ㄱ. 출덜 않다.

ㄴ. 깨끗어덜 안해요.<sup>25)</sup>

그런데 (21ㄱ)과 (21ㄴ)을 그대로 놓고 본다면 또 하나의 차이점이 남아 있다. 즉 부정사 ‘안’과 ‘아니’의 차이이다. 그러나 ‘不ㄴㅅ, 不能ㄴㅅ, 非ㄴㅅ’의 표기를 통해 ‘아니디’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고 ‘不ㅅ’도 ‘안디’가 아니라 ‘아니디’로 읽을 수 있다면(심재기·이승재 1998:42-43), 또한 그러한 태도를 확대시켜 ‘不ㅅ’도 ‘아니들’로 읽을 수 있다면 (21)은 다음과 같이 다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1') ㄱ. <15세기 이전>

① 단형 부정(동사, 형용사) : 아니-들 + ‘동사/형용사’

② 명사 부정 : ‘명사’ + 아니-디 이-

25)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7:259-260)에서 뽑은 전라북도 방언 자료이다.

- 26) 이러한 형식이 등장한 것은 현대국어에 들어와서인 것으로 보인다.

선행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용언의 장형 부정문과 같다. 이 점에서 우리는 ‘NP(이) 안디 이-’ 형식을 ‘안돌+피부정향(동사/형용사)’의 단형 부정보다 ‘-ㄴ 안디 이-’ 및 ‘-ㄴ 안돌 ㅎ-’ 형식과 비교하게 된다. 더구나 이들 세 형식에서 부정사에 선행하는 피부정향들이 일반 명사(구)이거나 동명사어미 ‘-ㄴ/-ㄴ’을 취하는 명사구라는 점에서도 그 성격이 일치한다. 즉 ‘명사(구)+안디 이-’ 형식이거나 ‘명사(구)+안돌 ㅎ-’ 형식으로 단순화될 수 있는 것이다. 차이는 ‘이-’에는 ‘디’가 선행하는데, ‘ㅎ-’에는 ‘돌’이 선행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흔히 시사되듯이 ‘디’와 ‘돌’이 의존명사 ‘ㄷ’을 포함한 형식이라면, ‘디’는 ‘ㄷ+이(주격조사)’, ‘돌’은 ‘ㄷ+ㄹ(대격조사)’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부정문은 기원적으로 각각 ‘[ ..... ㄷ]-이 이-’와 ‘[ ..... ㄷ]-ㄹ ㅎ-’의 구성이 되는 셈이다. 이 중에서 후자와 같은 동사 부정문은 기원적으로 목적어를 취하는 타동사 구문의 구성에서 출발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전자의 경우이다.

‘안디 이-’가 ‘[ ..... ㄷ]-이 이-’의 구성이라면, 이는 계사 ‘이-’ 앞의 명사(구)가 주격조사를 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2.1에서 논의를 미루어 놓았던 ‘-ㄴ 디이-’의 문제도 다시 꺼내게 된다(3')의 예 참고). ‘-디-이-’의 표기를 그대로 인정한다면 이것도 역시 ‘이-’ 앞에 주격조사가 선행하는 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들은 현재 계사에 선행하는 명사구가 명시적으로 주격조사를 취하는 예가 없는 상황에서, 계사의 두 번째 논항이 기원적으로는 주격을 취했음을 보여 주는 자료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여 국어 부정문의 기원적인 구성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25) ㄱ. [NP<sub>1</sub>이 [[NP<sub>2</sub>(이) 아니-ㄷ]<sub>NP3</sub>-이 이-]]<sup>(27/28)</sup>

27) 이론적으로는 명사문 NP3의 주어인 NP2가 주격조사 ‘이’를 취해야 하나 (25)와 같은 부정문에서는 명사 부정의 경우도 주격조사가 쓰인 예를 찾기 어려워 주격

ㄴ.  $[NP_1 \text{이} [[NP_2 \quad \text{아니-ㄷ}]_{NP_3} \text{-ㄹ} \quad \text{ㅎ-}]]$

명사나 형용사의 부정은 (25ㄱ)의 방식으로, 동사의 부정은 (25ㄴ)의 방식으로 실현되었는데, 피부정사가 동사나 형용사라 하더라도 그것은 ‘-ㄴ’이나 ‘-ㄷ’ 등의 동명사 어미를 취하여 실현되었으므로 결국은 피부정사가 명사구( $NP_2$ )로 실현된다는 점에서 명사 부정과 차이가 없다. 즉 여기서 부정문의 핵심 부분은  $NP_3(=[NP_2 \text{ 아니-ㄷ}])$ 라 할 수 있는데, 그 구성이 공통적으로  $[[\text{피부정사}]_{NP} + [\text{부정사}]_{NP}]_{NP}$ 란 점에서 명사나 동사, 형용사의 부정에 차이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구성( $NP_3$ )은 명사문이라는 점에서도 부정의 어순에 있어서나 15세기 국어의 ‘숯가락 아니예’(능 2:61)와 같은 예에서 [숯가락 아니]의 성격과 일치한다.

따라서 국어의 기본적인 부정 방식은 피부정사가 부정사에 선행하는 (25)와 같은 방식이고, ‘부정사 + 피부정사’ 방식의 소위 단형 부정 방식은 후대의 발달형일 가능성이 높다. 차자표기 자료에서 ‘안돌 + 동사/형용사’ 방식의 소위 단형 부정문보다 (25)와 같은 유형이 훨씬 일반적인 것도 그 한 방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부정문에 대한 검토를 정리하는 자리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상과 같은 논의가 부정문의 기원적 구성에 대한 것이지 석독구결 시대의 공시적 언어 현실을 제시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안돌’이 당시에 ‘명사 + 대격조사’의 구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앞의 (16)과 같은 단형 부정에서 ‘안돌’은 부사일 수밖에 없고, (26)의 예에서 밑줄친 ‘能矣’ 등을 감안할 때 ‘안득’은 부사이거나 ‘-ㅎ-’와 함께 합성어가 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sup>28)</sup> 이는 ‘안돌’

조사를 ( ) 속에 표시하였다.

28) 15세기 국어 명사 부정문에 나타나는 ‘아니-이-’의 ‘아니’는 이 ‘아니-ㄷ’의 명사적 성격을 이어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15세기 국어의 ‘아니-’ 구문은  $[NP_1 \text{이} [[NP_2 \text{이} NP_3(=\text{아니})] \text{이-}]]$ 의 구성을 갖게 된다. 그러나 (25)와 같은 구성 속의 ‘아니’ 자체가 원래 어떤 형태론적 자격을 지녔었다고 볼 것인지는 앞으로 검토할 문제이다.

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생각되기 때문이다.<sup>30)</sup>

(26) ㄱ. 諸煩惱行ヲ 動 令リ戸 能矢 不ハノチナヲ入ム

諸煩惱行의 動髣 能矢 안독 호리견 드로 (금광 7:11-12)

ㄴ. 實 [如]支 諸法シ 觀察 能 不ハノ尸スリ

實 다히 諸法을 觀察 能 안독훔과이다 (유가 10:8-15)

3.3 이제 여기서 다소 장황했던 부정문에 대한 논의를 접고, 계사 구문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앞서의 논의에서 알아낼 수 있었던 것은, 계사에 선행하는 명사구가 주격을 취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이-’가 용언임을 의미한다는 사실이었다. 이를 반영하면 ‘NP<sub>1</sub>이 NP<sub>2</sub>이다’ 구문은 기본적으로 ‘NP<sub>1</sub>이 NP<sub>2</sub>이다’였다고 할 수 있다. 주격중출문의 모습인 셈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격을 취하는 NP<sub>1</sub>과 NP<sub>2</sub>의 관계는 ‘철수가 머리가 아프다’ ‘토끼가 귀가 크다’와 같은 일반적인 주격중출문과는 성격이 다르다. ‘이 사람이 철수이다’에서처럼 NP<sub>1</sub>과 NP<sub>2</sub>의 동일성을 보이거나 ‘철수는 반보이다’에서처럼 NP<sub>2</sub>를 통해 NP<sub>1</sub>의 속성을 표시하는 모습은 오히려, ‘이것이 저것과 같다’에서 NP<sub>1</sub>과 NP<sub>2</sub>(의 비교속성)가 동일함을 보이거나 ‘영희는 얼음 같다’에서 NP<sub>2</sub>를 통해 NP<sub>1</sub>의 속성을 표시하는 ‘같다’ 구문의 모습과 유사하다.<sup>31)</sup>

또한 이들은 ‘-시-’의 실현에서도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주로 주어 NP에 호응하는 ‘-시-’가 이들 구문에서는 NP<sub>1</sub>뿐만 아니라 NP<sub>2</sub>에도 관

29) ‘안디(이)-’는 대개 합성어로 표기하는 반면에 ‘안돌(안독) ㅎ-’에 대해서는 해독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30) 본고의 부정법에 대한 논의에서 ‘안독’에 대한 구체적 검토는 제외하였다. ‘안돌’이 보다 일반적 형태라 생각되었던 데다, 사실 ‘안독’이 ‘ㄷ’를 포함한다고 할 때 ‘-ㄱ’의 존재를 설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주격조사로 설명되는 ‘-익/이기’의 ‘-ㄱ’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가정해 본다). 좀더 검토해야 할 과제이다.

31) 물론 ‘이-’ 구문과 ‘같-’ 구문이 보이는 NP<sub>1</sub>과 NP<sub>2</sub>의 관계가 완전히 똑같은 말은 아니다.

련되는 예들을 보이기 때문이다. 15세기 국어를 대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27) ㄱ. [부테] [큰 醫王의 一切衆生の 病 다 고름] 곧 ㅎ사물 가줄비시니  
(법 1:6)

ㄴ. [ e 世間人 衆生 爲 ㅎ사 조흔 나라히며 더러본 나라히며 제여곰스  
氣質을 조츠샤 化身을 뵈샤 敎化 ㅎ사미] [드레 비천 들] 곧 ㅎ시니  
라 (월석 2:55)

ㄷ. 世界에 잇는 거슬 내 다 보더 一切 [부터] ㄹㅌㅌ시니 업스샏다 (월석  
1:52)

ㄹ. 阿難이 부터고 슬오더 世尊하 [부터 니르삼] 곧 ㅎ사 ..... (능 1:56)

(28) ㄱ. 스승니미 었던 사르미관더 주벼느로 이 門을 여르시느니잇고 (월석  
23:84)

ㄴ. 부터 일후른 ..... 佛世尊이시니 (석 9:2-3)

ㄷ. 내 이제 娑婆世界에 가미 다 이 如來入 히미시며 (월석 18:72)

ㄹ. ㅎ다가 五陰이 곧 如來ㅣ신덴 (원각 상 1-1:63)

‘NP<sub>1</sub>이 NP<sub>2</sub>(와) 곧 ㅎ다’ 구문에서 ‘곧 ㅎ-’에 연결되는 ‘-시-’는 NP<sub>1</sub>(  
및 NP<sub>1</sub> 내의 성분)에 관련되는 것(27ㄱ, ㄴ)이 일반적이지만, (27ㄷ, ㄹ)처  
럼 NP<sub>2</sub>에도 호응할 수 있다. 계사 구문의 ‘-시-’도 (28)에서 보듯이 NP<sub>1</sub>  
뿐 아니라 NP<sub>2</sub>에도 관련될 수 있다.<sup>32)</sup>

그런데 ‘곧 ㅎ다’ 구문에서 ‘-시-’는 우선 1차적으로는 NP<sub>1</sub>과 관련되고  
2차적으로(주로 NP<sub>1</sub>이 생략된 경우) NP<sub>2</sub>에 관련되는 것이라고 이해되  
는데(김정아 1998:103),<sup>33)</sup> (28) 등의 예를 살펴볼 때 계사 구문도 비슷한

32) 이런 현상에 대해 “NP<sub>1</sub>이 NP<sub>2</sub>구성과 ‘NP<sub>1</sub>스 NP<sub>2</sub>’구성 내에, 화자에 의해 존대  
되어야 할 존재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뒤에 통합되는 계사 ‘(-)이-’에 ‘-으시-’가  
더 통합되는 것”(이현희 1994:124-5)이라거나, ‘계사문에서의 주어와 보어는 동지  
표된다’(유동식 1995:224-5)는 등의 설명을 만나게 된다.

33) 본고에서는 ‘-시-’가 ‘문장의 어떠한 일정한 성분과 그 서술어 사이에 성립하는  
엄격한 의미의 공기관계 또는 호응관계’가 아니라 ‘존대의 대상에 화자의 시점이  
이동해 가는 것’이라고 보는 의미·화용론적 입장을 취하였다. 임흥빈(1976, 1985),

경향을 보이는 것 같다. NP<sub>2</sub>에 ‘-시-’가 호응하는 것은 대부분 NP<sub>1</sub>(혹은 NP<sub>1</sub> 내의 속격 성분)이 존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일 경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가 어떤 원리에 의해 NP<sub>1</sub>과 NP<sub>2</sub>(혹은 그 구성 내의 요소) 중 한 쪽에 호응하게 되는가를 설명하기에는 아직도 복잡한 문제가 많다.

이처럼 ‘-시-’의 실현 원리를 제시하기에는 남은 문제가 복잡하며 ‘곧ㅎ->갈-’ 구문과 계사 구문에서의 ‘-시-’의 구체적인 실현 양상도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시-’의 문제는 두 구문 사이의 유사성을 시사해 준다 하겠다.

여기서 우리는 앞서 추정했던 ‘NP<sub>1</sub>이 NP<sub>2</sub>이 이-’ 구문을 (29)와 같은 ‘NP<sub>1</sub>이 NP<sub>2</sub>이 곧ㅎ-’ 구문과 연결짓게 된다.<sup>34)</sup> 지금까지 살핀 유사성 외에 두 구문은 주격중출이라는 점에서도 동일하기 때문이다.

(29) ㄱ. [執杖釋의 쏘이] [金像이] 곧ㅎ샤 (월곡 기 37)

ㄴ. [法이 퍼디여 가미] [물 흘러 녀미] ㄴ톨씩 (석 9:21)

NP<sub>1</sub>과 NP<sub>2</sub>의 의미 관계나 ‘-시-’의 실현 양상에서 계사 구문과 매우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곧ㅎ다’ 구문이 이처럼 주격중출로 실현된다는 사실은, 본고에서 계사 구문의 기원적 구성으로 ‘NP<sub>1</sub>이 NP<sub>2</sub>이 이-’ 형식을 추정하는 데 뒷받침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계사 ‘이-’는 기원적으로 두 개의 주격을 취하는 두자리 술어(형용사)였으며, 계사 구문의 기원적 구성은 15세기 국어의 ‘곧ㅎ다’ 구문과 함께 ‘진정한 주격중출문’(임흥빈 1974)의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계사 구문은 원래 [NP<sub>1</sub>이 [NP<sub>2</sub>이 이-]]의 구성이었으

김정아(1998) 참조.

34) 물론 15세기 국어의 ‘곧ㅎ다’는 이러한 유형 이외에 ‘NP<sub>1</sub>이 NP<sub>2</sub>와 곧ㅎ-’ ‘NP<sub>1</sub>이 NP<sub>2</sub>에 곧ㅎ-’ 등의 구문 유형을 보인다. ‘곧ㅎ다’ 구문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정아(1998) 참조.

며, 그 부정문은  $[NP_1이 [[NP_2(이) \text{ 아니-ㄷ}]]_{NP3}\text{-이 이-}]]$ 의 구성이었다고 정리하고자 한다.

그러나 물론 이러한 논의는 계사 구문의 기원적 구성에 대한 것이며 최소한 15세기 이후의 언어 사실과는 다른 것이다. 15세기 이후의 자료에서 계사에 선행하는 명사구가 주격을 취하는 증거는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서 (25)와 같은 부정문에서 동사 부정을 위한 형식 용언으로 ‘하다’가 선택된 반면 명사 및 형용사 부정을 위한 형식 용언으로는 ‘이다’가 선택되었다는 사실은, 전통적으로 국어에서 동사(타동사)적 성격을 대표하는 서술어는 ‘하다’이며 형용사적 성격을 대표하는 서술어는 ‘이다’였음을 강하게 시사해 준다. 따라서 두 개의 주격을 취하던 계사가 두 번째 주격의 비실현과 더불어 계사 자신의 형식적 특성(어휘적 의미가 거의 없는)으로 인해 두 번째 명사구와 ‘이-’의 관계가 더욱 밀접해짐으로써 ‘이-’의 선행요소에 대한 의존성이 강해지는 쪽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더라도,<sup>35)</sup> 두 개의 논항을 취하는 형용사로서의 성격은 현재까지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본고의 입장이다. 즉 국어의 계사 구문은  $[NP_1이 [NP_2이 이-]]$ 의 주격 중출 형식에서  $[NP_1이 [NP_2 이-]]$ 처럼 두 번째 명사구가 격조사를 취하지 않는 쪽으로 변화를 겪긴 했으나, 두 개의 논항을 취하는 용언(형용사)으로서의 성격을 잃어버린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 4. 맺음말

지금까지 우리는 15세기 이후의 계사 구문이 보이는 양상을 15세기

35) 이 부분에 대한 필자의 생각은 토론에 대한 답변 원고(4번에 대한 답변)에 좀더 구체적으로 적어 놓았으나, 이 문제는 계사 및 ‘같다’ 구문뿐 아니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답다’ 구문 등과도 연계하여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후고를 기약해 본다.



이전의 자료(주로 석독구결 자료)가 보이는 양상과 연결하여 검토함으로써, 국어 계사 구문의 기원적 성격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우선 계사 어간의 교체 양상과 계사 어간에 연결되는 어미들의 교체 양상을 살펴보았다. 석독구결 자료에서 계사 어간은 기본적으로 ‘ㄱ(이)-’로 표기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ㄱ’ 모음 뒤에서의 수의적인 생략 현상을 상정할 수 있는 가능성은 확인하였다.

계사 어간에 연결되는 어미들의 교체 현상 중에서는 ‘ㄷ:ㄹ’ 교체 현상이 석독구결 시기에도 존재하느냐가 가장 논란거리였다. 여기서 우리는 향가의 예들을 감안하여 ‘ㄱ ㅁ(이라)’형의 일부를 종결형으로 인정함으로써 석독구결 시대에도 ‘ㄷ:ㄹ’ 교체 현상이 존재했다고 이해하였다. 그러나 이는 15세기와 달리 수의적인 현상이었다. ‘ㄱ’의 약화 현상도 보이지만 그 역시 수의적인 현상이었다. 반면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의 ‘ㄹ’ 첨가 현상은 필수적인 현상이었다.

3장에서는 본고의 궁극적인 목표인 계사 구문의 기원적 구성을 밝혀 보려 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국어 부정문의 성격을 검토하였다. 계사의 부정문인 ‘아니-’ 구문의 성격을 이해함으로써 결국은 계사 자신의 성격도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차자표기 자료에 나타나는 부정문들을 종합한 결과 우리는 국어 부정문의 기원적 구조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 (25) ㄱ. [NP<sub>1</sub>이 [[NP<sub>2</sub>(이) 아니-ㄷ]<sub>NP3</sub>-이 이-]]: 명사, 형용사 부정  
 ㄴ. [NP<sub>1</sub>이 [[NP<sub>2</sub> 아니-ㄷ]<sub>NP3</sub>-ㄹㅎ-]]: 동사 부정

(25)에서 보듯이 명사가 아닌 동사나 형용사의 부정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동명사 어미(‘-ㅁ’이나 ‘-ㄴ’)를 취하여 실현되었으므로 결국은 피부정사가 명사구(NP<sub>2</sub>)로 실현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그런데 여기서 부정문의 핵심 부분인 NP<sub>3</sub>는 모두 공통적으로 [[피부정사]<sub>NP</sub> + [부정사]<sub>NP</sub>]<sub>NP</sub>의 구성을 취하고 있어, 국어의 기본적인 부정 방식은 피부정사

가 부정사에 선행하는 방식이고 ‘부정사 + 피부정사’의 소위 단형 부정 방식은 후대의 발달형일 가능성이 높다.

부정에 대한 논의에서 우리가 계사 구문에 대해 얻을 수 있었던 중요한 정보는 바로 (257)에서 보이듯이 계사에 바로 선행하는 명사구가 주격조사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이는 15세기 이후의 국어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현상이다. 그러나 우리는 두 논항 사이의 의미 관계에서나 경어법의 선어말어미 ‘-시-’와 관련된 호응 현상에 있어서나 계사 구문과 유사한 ‘ㄴᄃᆞ-’ 구문이 15세기에 ‘-이 -이 ㄴᄃᆞ-’ 형식의 주격중출을 보인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사실에도 힘입어 우리는 계사 구문의 기원적 구성이  $[NP_1$ 이  $[NP_2$ 이 이-]] 형식의 주격중출문이었으며, 그 부정문은  $[NP_1$ 이  $[[NP_2$ (이) 아니-ᄃ] $_{NP3}$ -이 이-]]의 구성이었다고 결론지었다. 그 후  $NP_2$ 가 주격을 취하지 않는 쪽으로 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두 개의 논항을 취하는 형용사로서의 ‘이-’의 성격은 여전하다고 하겠다.

15세기 이전의 차자표기 자료에 비증을 둔 이상과 같은 논의를 통해서 우리는 현대국어의 계사 구문 및 그 부정문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도 또 다른 시각을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그러나 우리의 논의가 계사 구문의 ‘기원적’ 성격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목표를 향해 진행되다 보니, 논지 전개에 긴밀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우리의 결론이 보다 객관적이기 위해서는 계사 구문과 그 부정문의 성격을 시대별로 정밀하게 검토함으로써 현대국어까지의 단계별 변화 양상을 제시하여야 했으나, 그러한 구체적이고 세밀한 작업을 진행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변화 과정에서 계사가 보이는 의존성의 확대 현상과 아울러 계사가 참여하는 문법화의 문제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앞으로 단계별로 차근차근 진행해야 할 과제로 생각한다.

## 참고 문헌

- 김유범(2000), 중세국어의 이형태 형성에 관한 일고찰, 제3회 음운론 연구모임 발표문.
- 김정아(1998), 《중세국어의 비교구문 연구》, 태학사.
- 남권희(1997), 차자 표기 자료의 서지, 《새국어생활》 7-4.
- 남성우·정재영(1998), 《구역인왕경》 석독구결의 표기법과 한글 전사, 《구결연구》 3.
- 남풍현(1976), 국어 부정법의 발달, 《문법연구》 3.
- \_\_\_\_\_(1996), 고려시대 석독구결의 동명사어미 ‘-ㄱ/ㄴ’에 대한 고찰, 《국어학》 28.
- \_\_\_\_\_(1998), 《유가사지론》(권20) 석독구결의 표기법과 한글 전사, 《구결연구》 3.
- 박진호(1998), 고대 국어 문법,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 국립국어연구원.
- 심재기·이승재(1998), 《화엄경》 구결의 표기법과 한글 전사, 《구결연구》 3.
- 안병희·이광호(1990), 《중세국어문법론》, 학연사.
- 유동석(1995), 《국어의 매개변인 문법》, 신구문화사.
- 이건식(1996), 고대국어 석독구결에 대한 연구, 단국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기문(1972), 《개정 국어사개설》, 민중서관(담출판사).
- 이남순(1999), ‘이다’론, 《한국문화》 24.
- 이승재(1994ㄱ), ‘-이-’의 삭제와 생략, 《주시경학보》 13.
- \_\_\_\_\_(1994ㄴ), 고려중기 구결자료의 형태음소론적 연구, 《진단학보》 78.
- \_\_\_\_\_(1996), ‘ㄱ’ 약화·탈락의 통시적 연구 —남권희본 《능엄경》의 구결자료를 중심으로—, 《국어학》 28.
- \_\_\_\_\_(1998), 고대 국어 형태,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 국립국어연구원.
- \_\_\_\_\_(1999), 《구역인왕경》 구결의 음운사적 의의, 《구결연구》 5.
- 이현희(1994), 《중세국어 구문연구》, 신구문화사.
- \_\_\_\_\_(1994), 계사 ‘(-)이-’에 대한 통시적 고찰, 《주시경학보》 13.
- 임홍빈(1974), 주격 중출론을 찾아서, 《문법연구》 1.
- \_\_\_\_\_(1976), 존대·겸양의 통사 절차에 대하여, 《문법연구》 3.
- \_\_\_\_\_(1985), ‘-시-’와 경험주 상정의 시점, 《국어학》 14.
- 정재영(1996ㄱ), 순독구결 자료 《범망경보살계》에 대하여, 《구결연구》 1.
- \_\_\_\_\_(1996ㄴ), 《의존명사 ‘ㄷ’의 문법화》, 태학사.

\_\_\_\_\_(1998), 《합부금광명경》(권3) 석독구결의 표기법과 한글 전사, 《구결연구》 3.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7), 《한국방언자료집》 V(전라북도편).

■ 2000년 국어학회 공동토론회 지정 토론

## 〈‘이-’의 문법적 특성에 대한 통시적 고찰〉에 대한 토론

최 동 주

이 논문은 계사 ‘이-’의 형태·통사적 특성에 대한 통시적 고찰을 시도한 연구로서, 이현희(1994)에서 후기 중세국어를 중심으로 한 통시적 검토가 이루어진 바 있음을 고려하여, 후기 중세국어 자료에 나타나는 특징들을 그 이전의 자료들에 나타나는 특징들과 비교·검토한 것이다. 특히 계사 구문의 기원에 관한 설득력 있는 가설을 제시함으로써 ‘이다’에 관한 문법사적 논의나 현대국어의 ‘이다’에 관한 논의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논문의 순서에 따라 토론자의 의견을 덧붙이고, 궁금하게 여겼던 부분에 대해 질문하고자 한다.

이 논문의 2장에서는 석독구결 시기의 ‘이-’의 형태론적 특징을 검토하고 있다. 먼저 ‘이-’의 생략 현상에 대해서는 ‘이-’의 표기 자체가 생략될 수 있었으나, 자음 뒤에서나 모음 뒤에서나 표기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밝히고, 계사에 후행하는 어미들의 교체 현상이 이미 이 시기에 존재했으나 그 후 대체적으로 그 실현 환경을 넓혀 가며 필수 규칙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고 정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고대국어에서 전기 중세국어로 이르는 변화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못한 점은 아쉬운 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이현희(1994)에서는 계사 뒤에서의 ‘ㄷ~ㄹ’의 교체는 13세기부터 보이며, ‘ㄱ’의 약화는 이보다 조금 이른 시기일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하면서 후행 어미의 교체 양상이 시기별로 달랐다고 한 바 있으나, 이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석독구결 자료에 국한하지 않

고 좀더 폭넓은 자료를 검토함으로써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장은 ‘이-’의 통사론적 특징을 다루고 있다. 먼저 ‘이-’가 어떠한 요소의 뒤에 쓰일 수 있는지 검토한 다음, 차자표기 자료에 나타나는 부정문의 양상을 살피고, 명사부정 ‘명사 안디 이-’를 ‘[... ㄷ]-이 이-’로 분석하면 계사가 기원적으로 주격명사구를 취했다고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어서 ‘같다’ 구문과의 유사성을 근거로 하여 계사 구문은 기원적으로 진정한 주격중출문으로, [NP이 [NP이 이-]]의 구성을 취하고 있었으나, 주격조사와 계사의 음운론적 유사성, 계사의 형식적 특성 등으로 인하여 두 번째 명사구의 주격이 실현되지 않는 쪽으로 변하였으며, 이의 비실현은 두 번째 명사구와 ‘이-’의 관계를 더욱 밀접하게 만들었다고 결론짓고 있다.

논의 과정에 제시된 부정문에 관한 견해는 매우 흥미로운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가. 석독구결 시기의 장형 부정문은 ‘형용사-ㄴ+안-디 이-’, ‘동사-ㅁ+안-돌 ㅎ-’의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
- 나. 후기 중세국어에 이르면서 형용사와 동사가 취하던 동명사어미 ‘-ㄴ’과 ‘-ㅁ’은 삭제되고 그 자리로 부정사 ‘안’에 결합하던 ‘디’와 ‘돌’이 옮겨 오는 변화를 겪었다.
- 다. 명사부정 ‘명사 안디 이-’는 피부정항이 부정사에 선행한다는 점에서 용언의 장형 부정문과 비교할 수 있다.

(1나)는 석독구결 시기의 형식과 15세기 이후의 형식의 표면적인 차이를 정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실제로 이러한 변화가 있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논문에 (23)으로 제시된 다음 예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 (2) 가. 昔尸 得尸 未リソコセノ (금광 7:18-20)

나. 衆生ᄃ 資身ᄃ 具尸 有4尸 未ᄃᄃ 1ᄃᄃ 乙 見口ᄃᄃ (화엄 19:12 -13)

(2)의 예들은 ‘안’ 뒤의 ‘둘’은 삭제된 반면 동명사 어미 ‘-ᄃᄃ’은 남아있는 예들로서, 이 논문의 견해에 따르면 ‘예외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2)와 같은 예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안’의 뒤에 결합하던 ‘디’와 ‘둘’이 없어진 것과 ‘-ᄃ’, ‘-ᄃᄃ’ 대신 ‘디’와 ‘둘’이 쓰이게 된 것이 별개의 사실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 아닐까? 전자는 ‘이다’와 ‘하다’의 범주가 변화한 것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으며, 후자는 동명사 어미 ‘-ᄃ’, ‘-ᄃᄃ’의 변화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1다)에서는 명사 부정문을 용언의 장형 부정문과 비교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도 재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의 주장대로 ‘이-’가 기원적으로 두 개의 주격을 취하는 두 자리 술어였다면, 일반적인 용언 구문의 피부정향이 용언인 것과 마찬가지로, 적어도 계사구문의 기원적 구성에서 피부정향은 ‘이다’라고 할 수 있으며, 그렇다면 피부정향이 부정사에 후행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 논문에서는 계사구문의 변화와 관련하여 주격조사와 계사의 음운론적 유사성, 계사의 형식적 특성 등으로 인하여 두 번째 명사구의 주격이 실현되지 않는 쪽으로 변화하였으며, 이의 비실현은 두 번째 명사구와 ‘이-’의 관계를 더욱 밀접하게 만들었다고 보았다. 음운론적 유사성은 ‘이-’의 변화를 초래한 원인이 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형식적인 특성’, ‘밀접하게 만들었다’는 표현 등은 좀더 구체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또한 두 번째 명사구의 주격의 비실현이 두 번째 명사구와 ‘이-’의 관계를 더욱 밀접하게 만들었다고 하기보다는 계사가 형식적 특성에 의하여 자립성을 상실하고 의존형식으로 변화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두 번째 명사구의 주격이 실현되지 않게 되었다고 설명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된다.

이 논문의 3장은 전체적으로 계사 구문의 기원적 구성을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다’가 기원적으로 두 개의 주격을 취하는 두 자리 술어였다고 하면서도, 전기 중세국어나 후기 중세국어 시기의 ‘이다’가 어떠한 범주에 속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기대한다.

서두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 논문에서는 후기 중세국어 자료에 나타나는 특징들을 그 이전의 자료들에 나타나는 특징들과 비교·검토하는데 목적으로 두고 있다. 그 결과 후기 중세국어 이후의 변화 과정은 다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다’의 통시적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이-’와 어미의 결합형식은 하나의 단위로 굳어져 문법화하는 일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변화 과정에 대한 검토는 아직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 참고 문헌

- 김정아(1998), 《중세국어의 비교구문 연구》, 태학사.  
 박진호(1998), 고대국어 문법,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 국립국어연구원.  
 이현희(1994-), 《중세국어 구문연구》, 신구문화사.  
 \_\_\_\_\_(1994-), 기사 ‘(-)이-’에 대한 통시적 고찰, 《주시경학보》 제13집, 탑출판사.  
 정재영(1996), 《의존명사 ‘ㄷ’의 문법화》, 국어학회.



## ■ 지정 토론에 대한 답변

### 김 정 아

공동토론회에서 지정토론을 해 주신 최동주 선생님의 지적에 힘입어 본 논문의 내용을 좀더 충실하게 수정·보완할 수 있었던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토론 원고의 순서에 따라 답변하기로 한다.

1. 2장(형태론적 특징)과 관련하여 고대국어에서 전기 중세국어에 이르는 변화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못한 점이 아쉽다. : 사실 본고에서는 형태론적인 측면뿐 아니라 통사론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시대별로 구체적인 검토 작업을 하지 못하고, 주로 석독구결 시기와 15세기 국어의 모습을 집중 비교하는 데 그쳤다. 이는 본 논문에서도 지적했듯이 석독구결 시대 자체의 현상을 이해하는 데도 이견이 많은데다가, 고대국어에서 전기 중세국어까지의 형태론적, 통사론적 모습을 단계별로 보여줄 충분한 국어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갖고 살펴보기로 한다.

2. 3장의 부정문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안’의 뒤에 결합하던 ‘디’와 ‘둘’이 없어진 것과 ‘-ㄴ’, ‘-ㄹ’ 대신 ‘디’와 ‘둘’이 쓰이게 된 것은 별개의 사실이 아닐까? 전자는 ‘이다’와 ‘ㅎ다’의 범주가 변화한 것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으며, 후자는 동명사 어미 ‘-ㄴ’, ‘-ㄹ’의 변화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 필자에게도 국어 문법사에서 (1나)(본고에서는 (21))와 같은 변화는 매우 특이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15세기 이후 현대 방언 자료에 이르기까지 부정되는 용언 뒤에 ‘-디(>지)’와 ‘-둘(>덜/들)’(본고의 예문 (22-23) 참조)이 공존하는 현상은, 이들 ‘-디’와 ‘-둘’이 ‘안(아니)’ 뒤에 실현되던 바로 그 요소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 주된 이유로는 토론자도 시사했

듯이 동명사 어미였던 ‘-ㄴ’과 ‘-ㄹ’이 동명사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린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명사(형)+부정사’의 기본 구조를 갖던 국어 부정문에서 앞의 피부정사인 ‘명사(형)’이 더 이상 명사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이다’와 ‘하다’의 범주 변화는 오히려 그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생긴 결과가 아닐까 생각된다.

3. 기원적으로 주격중출문인 계사구문의 부정문에서 피부정항은 ‘이다’이며 그렇다면 피부정항이 부정사에 후행하는 것인데, 이는 명사 부정문을 용언의 장형 부정문과 비교할 수 있다고 하는 필자의 입장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 토론회의 발표 원고에서 국어 부정문의 구조를 자세히 보이지 않아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 필자에게 국어 부정문의 기본 구조는 용언의 부정이건 명사의 부정이건 ‘명사(형)+부정사’이다(본 논문의 (25) 참조). 따라서 기원적인 계사구문의 부정문에서도 피부정항은 부정사에 후행하는 ‘이다’가 아니라 선행하는 ‘명사’가 된다.

4. 계사구문의 변화와 관련하여 ①음운론적 유사성은 ‘이-’의 변화를 초래한 원인이 되기 어려울 듯하다. ②‘형식적인 특성’, ‘밀접하게 만들었다’는 표현 등은 좀더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③두 번째 명사구의 주격의 비실현이 두 번째 명사구와 ‘이-’의 관계를 더욱 밀접하게 만들었다고 하기보다는 계사가 그 형식적 특성 때문에 의존형식으로 변화함에 따라 두 번째 명사구의 주격이 실현되지 않게 되었다고 설명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 : ①에 대해서는 토론자의 의견에 공감하여 원고를 수정하였다. ②에 대해서는 문법화 현상들과도 관련하여 앞으로 좀더 구체적인 검토를 해 보고자 한다. ③과 관련해서는 필자가 계사구문과 상당한 유사성을 보이는 것으로 제시한 ‘같다’ 구문을 생각해 보았다. 현대국어어를 예로 들면 ‘같다’ 구문은 기본적으로 ‘A가 B와 같다’와 같이 두 번째 논항이 조사를 취하는데, 이는 ‘A가 B 같다’처럼 조사생략형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꽃과 같다, 꽃 같다”). 이 경우 후자에서 선행명사와 ‘같다’ 사이에 더욱 긴밀한 상호관련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

된다(그러나 물론 B와 ‘같다’ 사이의 의미적 의존성—하나의 서술어처럼 쓰이는—이 후자와 같은 조사생략형의 사용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같이’의 경우는 더욱 그래서 ‘꽃과 같이’에 대해 ‘꽃같이’의 ‘같이’는 선행명사에 의존하는 조사로 인정을 받기까지 하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계사구문도 ‘A이 B이 이다’에 대해 ‘A이 B 이다’가 공존하였고, 후자와 같은 예들이 선행명사와 ‘이다’의 관계를 형태론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묶어 주지 않았나 생각한다. 하지만 ‘같다’와 달리 두 번째 논항이 격을 취하는 형식이 완전히 없어진 데는 ‘이다’ 자체가 가지고 있는 형식적 특성(어휘 의미가 거의 없는)이 상당 부분 기여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5. ‘이다’의 기원적 구성에 대해서는 밝히면서도, 전기 중세국어나 후기 중세국어 시기의 ‘이다’가 어떠한 범주에 속하는지, 또한 후기 중세국어 이후에 어떻게 변화했는지 등 통시적 변화 과정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문법화와 관련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 현재의 논문에서는 계사가 현재에 이르기까지 항상 두 개의 논항을 취하는 용언(형용사)이었다는 점만을 지적하고, 시대별로 구체적인 변화 양상을 추적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계사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인 문법화에 대해서도 살피지 못했다. 앞으로 별도의 연속적인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과제들로 남겨 둔다.